Entertainment p/18

한효주 '사생활 폭로' 협박

Sports p/23

맨유 울린 김보경 'EPL 첫골'

하룻밤새 화물선 3척 좌초… '기름바다' 된 울산 방어진 25일 새벽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벌크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 화물선 3척이 잇따라 물살에 밀려 좌초됐다. 이날 3척의 배가 갑자기 좌초되면서 연료탱크 등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울산해양경찰서와 동구청 직원들이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세계 3억명 손마다 꽉 쥔 'IT한류'

모바일메신저 '라인' 200여국 다운로드 대기록…모바일게임도 코리아 바람

25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라인 주식회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등장했다. 5년 넘게 언론 노출이 없었던 그에게는 '은둔의 경영자'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닌다.

그랬던 이 의장도 이날만큼은 공식 석상에 설 수밖에 없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글로벌 누적 3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의미 있는 시기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3억이라는 숫자가 꿈만 같다. '세리 키즈(박인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호령하고 있듯이 '제2의 라인'이 속속 등장해 한국 대표가 되길 바란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의 기쁨을 전했다.

이 의장이 생각하는 라인의 내년 사용자 수는 지금까지 5억명이다. 이는 SNS 대표 주자인 트위터의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이기도 하다.

'IT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산 IT 제품·서비스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부터 'IT 강국'임을 자부해왔던 한국이 마침내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컨 글로벌 사용자 3억 명을 돌파한 라인만 봐도 멕시코와 같은 남미는 물론 인도가 있는 서남아시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의 서유럽까지 200여 개국에 가입자를 확보했다.

온라인게임 종주국이었던 한국은 모바일게임에서도 세계시장을 흔들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퍼즐게임 '라인팝'은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 앱스토어 무료 종합 랭킹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달 누적 다운로드 4000만 건 달성이 유력하다.

이 회사의 또 다른 모바일게임 '포코팡'은 일본어, 영어로만 서비스했으나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현재 태국어와 중국어 번체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000만 다운로드가 임박한 상황이다.

온라인게임을 스포츠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스포츠는 신흥 종교 수준의 인기를 자랑한다. 세계 e스포츠 팬들은 이 콘텐츠가 태동한 한국에서 프로게이머를 만나고 이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일련의 과정을 '성지순례'라고 표현한다.

한국인 게이머가 등장하는 e스포츠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국팀 SKT T1의 우승으로 끝난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3 월드 챔피언십 2013' 결승전 시청자 수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비슷한 32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첨단 IT기기 시장은 이미 국산이 대세다.

미국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장 선호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컨슈머리포트는 얼마 전 '최고 스마트폰'으로 갤럭시S4를 꼽은 데 이어 LG G2와 삼성의 OLED TV를 올해 10대 제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박성훈기자·도쿄=정훈회기자

zen@metroseoul.co.kr

정수기 전력소비 '냉장고 2대'

사용않는 시간 꺼두면 에너지 60% 절약효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정수기의 전원을 꺼두면 전력을 60%까지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수기 1대당 월평균 33.3kWh의 전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전기료로 따지면 매달 1만1184원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통해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가정·상점·사무실 등 약 800곳을 방문해 정수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전력량을 측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수기 1대의 월간 평균 전력 사용량은 56.2kWh로 800~900ℓ 용량 가정용 냉장고 월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1.7배 많았다.

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전원을 차단하면 정수기 1대당 평균 33.3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시간 작동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6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수기 1대당 매달 전기료 1만1184원을 줄일 수 있다.

정화경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전국 가정과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끈다면 연간 27억1000만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상점과 어린이집 등 정수기 1500대에 손쉽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설치하고, 정수기 외에 셋톱박스나 비데 등 전력 소모가 큰 전기제품에 대해서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h@

단통법의 정답, 넥서스5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구글이 기획하고 LG전자가 제조한 '넥서스5'가 22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본격 출시됐다.

이번에 선보인 넥서스5는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인 40만원대의 출고가로 성능은 고가 스마트폰에 뒤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넥서스5는 16기가바이트(GB) 기준 최신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4.4킷캣(Kitkat)을 탑재했으며 퀄컴 스냅드래곤 800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디스플레이는 5인치 풀HD IPS를 채택했다.

넥서스5 출시로 인해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기업도 있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넥서스5의 고성능 저비용의 구조는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넥서스5의 성능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전자 'G2'와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출고가는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그동안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속아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통과가 제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명한 장려금 정책을 통한 정당한 출고가를 정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제조사도 무조건적인 단통법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투명한 출고가 정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日 위안부 관련 3060점 '국가기록물' 지정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과와 배상 요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영구 보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물로서 보존·복원 정리 사업, 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관련 기록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 기록과 그림, 유품 등과 집회 관련 사진, 영상으로 지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윤다혜기자 ydh-

뉴스&뉴스

'제주·이어도 인근 中방공식별구역' 중국에 유감

도미노 쌓듯 불도 조심조심
25일 수원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원 대평고 체육관에서 겨울철 불조심 도안을 도미노로 제작하고 있다. /뉴시스

● 외교부는 25일 중국의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다.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으며 이 심의관은 중국 측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을 불러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키로

●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6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대기환경 전광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되며 시간당 농도가 45㎍/㎥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해제된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해 인체에 치명적이다.

"장병희생 무시, 안봐줘"

박 대통령·정 총리 '시국미사' 사제단 겨냥 강경발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각종 우익단체,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의 지적에 이어 청와대의 비난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언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운영 상임위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옹호하는 듯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라를 건국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킨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박 신부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강경대응하고 나선 것은 영토를 지키는 군에 사기를 불어넣고, 야권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황우여·김한길 '마이동풍 회담'

민주당 의원들 집단퇴장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관련한 정 총리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했다. 이후 전병헌(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경환(오른쪽 아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 정상화 나선 여야대표 특검도입 등 합의점 못찾아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가 25일 대표 회담을 했지만 결국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4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한 정치 개혁 등 3대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내 의견을 물어 3~4일 내로 김 대표에게 답변을 주겠다"며 "전쟁이라도 (정치 쟁점과) 예산안을 분리해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회담에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특위 수용은 가능하지만, 특검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김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추워져서…" 연내 이산가족상봉 무산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기약 없이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당국자는 "오늘 당장 합의한다고 해도 준비하는 데 2~3주가 걸리는 데다 날씨가 추워져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어렵다"며 "올해 안에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 해결도 늦춰지고 있는 데다 북한이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올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면서 미뤄졌다. 북한은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현정기자

탈북위장 여간첩 징역5년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공작 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씨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공소사실 중 중국 선양, 칭다오, 베이징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다혜기자

‘어린 흉악범’ 혼쭐난다

새누리당 ‘소년법 개정안’ 발의…‘형사처벌 면제’ 만12세 미만으로 하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어린바 ‘촉법소년’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도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25일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촉법소년의 범죄가 2만2490건 발생하는 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가 62건, 강간이 363건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김상민 특위위원장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건도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전에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10일 이내에 임시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자의 출석을 의무화해 보호자의 교육 의지도 확인토록 했다.

학교폭력대책을 위반할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을 입벌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수업보다 어렵네” 교사들 정시전형 열공중 25일 오후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2014 대입 정시모집 대비 고등학교 교사 진학설명회가 열렸다. 서울시 317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연합뉴스

“응애” 더 줄어든 아기 울음소리

출생아수 9개월째 감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생아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3만72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4500명(10.8%) 감소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0.4%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된 후 2월 -9.1%, 3월 -10.2%, 4월 -8.0%, 5월 -9.4%, 6월 -12.6%, 7월 -9.2%, 8월 -11.6%, 9월 -10.8%로 감소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왔던 혼인 건수는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늘고 있는 추세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9200건으로 지난해 9월 1만9000건보다 200건(1.1%) 늘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혼인 건수는 23만100건으로 지난해 23만2100건보다 2000건(0.9%) 감소했다.

한편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6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1.0%)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정기자

“구당선생 침·뜸 교육 오프라인선 못한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 김남수(98·사진)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김옹은 지난해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김옹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한국정통침구학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옹이 상급심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소리기자

무서운 바람의 습격…뒤집힌 전국

울산·부산 선박 수척 좌초 거제 수백가구 정전 소동

25일 전국에 불어닥친 돌풍성 강풍으로 밤새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해상에서는 선박 수 척이 좌초하고 하늘길, 뱃길도 묶여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양철 패널이 날려 인근 고압선을 덮치면서 일대 700여 가구가 정전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오전 1시47분께 울산시 동구 슬도에서 2.5㎞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선적 4675t급 벌크선 ‘ZHOU HANG 2호’(승선원 17명)가 안전지대로 대피하던 중 강풍에 밀려 연안에 좌초됐다.

2시30분께는 파나마 선적 7675t급 석유제품운반선 ‘CS CRANE호’(승선원 18명), 3시55분께는 우리나라 석유제품운반선인 2302t급 ‘범진 5호’(승선원 11명)도 잇따라 바람과 파도에 밀려 연안 0.5마일가량 지점에서 각각 파도에 휩쓸렸다.

이들 선박은 배가 연안으로 밀리는 상황에 대비해 먼 바다 쪽 묘박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풍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선원 구조 작업에 나서고 만일에 있을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오전 2시 30분께는 부산 남외항 태종대 앞바다를 운항하던 12t급 예인선과 5000t급 바지선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 사고로 예인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의 발이 묶였으나 부산 해양경찰서가 구조대를 급파해 모두 육상으로 대피시켰다.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잇따랐다. /조현정기자 라홈

동작구 ‘심폐소생 방문교육’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 관공서, 아파트 등 주민이 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주민은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인원을 확보하면 된다. 문의 02)820-9456

노원구 ‘자살예방’ 강연 손짓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지역 내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을 위한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은 자살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자살 문제 권위자인 한림대 철학과 오진탁 교수가 맡는다. 문의 02)2116-4328

강서구 ‘세계적 건강도시’ 만들기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 가입과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 건강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25일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의 사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강영향평가란 구의 모든 정책·프로그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 사업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다.

또 ‘사상체질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지난해 도입해 현재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28개소를 지정하고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한의원에 보급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한방 진료 및 한의약 선강 증진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 및 촌장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1922년 11월 26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한 투탕카멘왕의 무덤에 최초로 들어가 찬란한 황금의 관과 가면을 발견했다. 투탕카멘은 9세의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됐지만 18세에 요절했다. 그의 무덤이 도굴꾼의 눈을 피해 고스란히 보존된 이유는 무덤 위에 람세스 1세의 무덤이 만들어져 두꺼운 토사층에 덮여 버렸기 때문이다. 발굴 당시 주변 인물들이 의문사한 ‘파라오의 저주’ 때문에 투탕카멘은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된다.

metro HongKong

metro France

팔씨름 국제적 인기 — "올림픽 참 기봐?"

제2회 국제팔씨름대회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프랑스에서 암레슬링(팔씨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 현재 약 60명의 프랑스 선수단 등록돼있다. 동유럽의 경우는 암레슬링 인기가 높아 유럽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같은 나라는 암레슬링을 정부가 특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 명의 팔씨름 선수들이 참가했다.

metro Brazil

아이폰5S '브라질이 봉?' — 무려 167만원

브라질에서는 아이폰5S가 얼마에 팔릴까?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5S의 브라질 내 출시 가격이 모델별로 최소 2499헤알(약 115만원)에서 최대 3599헤알(167만원)으로 확정됐다. 브라질의 통신사 팀(TIM)은 16기가바이트 모델을 1599헤알(183만원)에 판매한다.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이 549 달러(57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약 1.9배 더 비싼 셈이다. 가장 비싼 64 기가바이트 모델은 3599헤알(167만원)로 미국에서는 849달러(9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metro Russia

붉은 광장 뜬 명품 가방 아닌 행사장!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초대형 명품 가방이 등장해 화제다.

가방 겉면에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을 상징하는 'LV' 로고가 찍혀있는 이 조형물은 대형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기술자들이 특별 초빙됐고 대형 크레인 등 특수 장비도 동원됐다.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모스크바 굼백화점 건립 120주년을 기념해 루이비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며 "이 가방은 단순한 설치 조형물이 아니라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개최되는 루이비통 특별전의 전시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로 인해 한동안 붉은 광장의 분위기가 기존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곳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낸시와 제리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광경"이라며 "저 큰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스크바를 자주 방문했지만 이런 멋진 광경은 처음 본다"며 "여자라면 누구나 멋진 물건들로 가득한 이런 가방을 갖고 싶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된다"며 활짝 웃었다.

루이비통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여행과 탐험이라는 테마로 수많은 탐험가의 여행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 행사장에는 여행과 관련된 제품뿐 아니라 니콜라이 2세, 어니스트 헤밍웨이, 데미안 허스트, 샤론 스톤 등 수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은 가방과 액세서리 등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행사가 겨울방학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 전시장을 찾는 학생도 많을 것 같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알렉산더 슈라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까불이' 바꾸는 밥공기 훈련

중국 인성교육 각성 바람타고 '서있는 자세평가' 별난 초교 눈길

앉은 자세, 선 자세, 개인 위생, 책상 정리 잘 서기 –

중국에서 학생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각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자세 등을 성적에 반영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다.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시의 난산(南山)초등학교는 올해 9월부터 1, 2학년 학생들의 행동 습관 평가를 성적에 포함시키는 '학생종합인성평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오후 난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특별한 중간고사를 치렀다. 담임교사의 손에는 앉은 자세, 선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책상 정리 정돈, 개인 위생 등 8가지 항목이 적힌 평가표가 들려있었다. 담임교사의 지시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평가표 항목의 행동들을 수행했다.

현장 평가 이외에 '매 학기 일정량의 독서', '수업시간에 똑바로 앉아 집중하기', '단정한 두발 및 손톱 상태 등 철저한 위생', '사용한 식기 제자리에 놓기' 등의 항목은 교사가 평상시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태도를 보고 평가한다.

평가 항목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서 있는 자세 평가'다. 학생들이 똑바로 곧게 서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생식당의 밥공기 9개가 '시험 도구'로 사용됐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9명이 1조를 이루어 서서 머리에 밥공기를 얹고 10초 이상을 버텨야 한다. 담임교사는 10부터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한다. 밥공기가 중간에 떨어지면 감점을 받는다. 이 평가 방식은 한 교사가 머리에 공기를 얹고 하는 무용 공연을 보고 생각해 낸 방법으로 교사들이 모두 재미있다고 생각해 시행하게 됐다.

한 교사는 "인성 평가를 시행한 이후 학생들의 말씨이 눈에 띄게 좋았다"면서 "학생들이 항상 웃고 즐기면서 좋은 습관을 스스로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후이저우시 교육업계 관계자는 "난산초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공립학교처럼 교육부의 심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학의 자주성이 크다. 난산초등학교의 이런 소양 교육은 결과가 어떻든 이 지역 교육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2015.98 (+9.75)	507.78 (+3.70)
금리	**환율**
2.87 (+0.02)	1061.50 (+0.50)

뉴스 & 뉴스

경제성장률 1%P 떨어지면 가계소득 4조6000억원 증발

●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 소득은 약 4조6000억원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저성장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가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각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지기자

산업대출 2년만에 최대증가 전분기보다 13조1000억 늘어

● 지난 3분기 산업대출이 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은 825조7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3조1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액은 지난 2011년 3분기(16조6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산업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 7조8000억원 줄었다가 올해 1분기에 10조9000억원 증가했고, 2분기에도 12조2000억원 늘었다.

루블화 등 22개 통화 환율 내년 3월부터 추가로 공표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내년 3월부터 러시아 루블화 등 22개 통화의 재정 환율을 추가로 공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고시 환율은 기존 21개 통화에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레알화, 대만 달러화, 필리핀 페소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등이 더해져 총 43개가 된다.

한은 관계자는 "러시아,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활동이 많아진 아시아 역내 국가의 통화를 추가해 고시환율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갑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55

2005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205

1인당 국민소득 2만4000달러 넘었지만…문제는 소득 양극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44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GDP가 증가해 '파이'가 커진 데다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해 달러화로 환산한 GNI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나빠진 분배 지표를 고려하면 경제성장의 과실을 상위층만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6배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진 셈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모바일 메신저 라인>

전세계 3억명 LINE 탄다

감정표현 쉬운 스티커 등 인기비결 "내년엔 가입자수 5억명 돌파 목표"

"3, 2, 1!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합니다!"

25일 오후 2시35분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라인 주식회사 21층에 위치한 대강당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졌다.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 세계 이용자 3억 명 돌파를 알리는 숫자가 뜨자 참석자들의 축하 인사와 폭죽 소리로 강당이 떠나갈 듯했다. 라인의 모리카와 아키라 대표가 황금색 박을 터뜨리자 라인 이용자 3억 명 돌파 축하 현수막이 펼쳐졌다.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70% 점유율을 웃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의 검색 서비스를 접고 라인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정도다.

라인의 인기는 일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까지 전 세계 230개국 이상에서 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개국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로 전 세계 20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소통하는 셈이다.

라인의 마쓰다 준 집행임원은 "라인은 사람 간의 소통이 더욱 절실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시기 출시됐다"면서 "라인은 인간 소통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커뮤니케이션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됐다"고 말했다. 또 "3억이란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닌 3억 개의 이야기가 시시각각 생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라인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의 메신저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출시된 라인은 모바일 기기와 개인 PC에서 가입자들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톡이 1위를 굳히는 사이 라인은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꾀했다. 서비스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 돌파까지 19개월, 2억 명 돌파 6개월, 3억 명 돌파 4개월 등 누적 이용자 갱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현지 마케팅을 벌인 결과 최근 진출 3개월 만에 인도 이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라인 주식회사 모리카와 아키라 대표는 "지난 1월 전 세계 가입자 수 1억 명 달성을 기점으로 올해 안에 가입자 수 3억 명 목표를 이뤄 대단히 기쁘다"면서 "라인의 인기 비결은 단순한 메시지 전송 기능에서 진화해 감정 표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메시지 개발, 음성·영상 통화 기능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전 세계 가입자 수 5억 명 돌파를 목표로 라인을 세계 최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도쿄=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국민은행 특별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25일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까지 폭을 검사를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3040 최고 주식부자 3조5000억원 정의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조5000억원의 주식자산을 보유해 30~40대 중 최고 부자로 나타났다. 2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조6070억원), 3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조3500억원)이다.

CEO스코어는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자산 가치가 1000억원을 넘는 30대와 40대 주식 부호는 52명으로, 이 중 자수성가형은 9명인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40대 1000억클럽은 54명에서 2명 감소한 반면, 1조원 이상 자산가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입성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30~40대 중 최고 주식부호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현대글로비스·기아차·현대엠코 등의 주식 가치가 3조5530억원에 달했다.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조6070억원으로 1위인 정 부회장과는 8930억원 차이가 났다. 3위는 1조3500억원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어 4~5위는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은 엔엑스씨 지분 48.5%를 보유해 자산가치가 1조3340억원에 달했고, 네이버 이 의장은 1조440억원을 기록했다. /김필규기자 kcc@

설거지통 쓰면 물 사용량 5분의 1

전순이 경제학

물을 '흔하다'는 이유로 우습게 보면 곤란하다. 전기만큼이나 쏠쏠하게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물'이다. 가정에서 얼게 오르게 새고 있는 물을 꽉 잡아보자.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5분의 1가량이 주방에서 쓰인다. 우선 주방에서는 설거지통 사용이 필수다. 10분 동안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100ℓ 이상의 물이 사용된다. 대신 설거지통을 이용하면 20ℓ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어 무려 80ℓ의 물을 아낄 수 있다.

똑같은 양의 물이라도 샤워기 형태의 수도를 사용하면 접촉 면적이 넓어져 세척 시간이 짧아지고, 약 10~20%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절약 방법 중 하나다. 물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쌀 씻은 물이나 국수 면을 삶은 물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설거지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또 하나의 팁! 시금치를 데친 물은 기름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니, 기름기 많은 그릇을 씻을 때 이용해 보자.

샤워할 때도 물을 콸콸 쓰기 마련. 샤워 시간은 15분 이하로 줄이고, 샤워 도중 불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꼭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만약 15분 넘게 샤워를 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 것보다 물을 더 많이 쓴다는 사실 명심하자.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물줄기가 세게 나오는 '절수형 샤워 헤드'를 사용하면 물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세탁물은 모아서 세탁하고, 세탁물의 양에 따라 세탁기의 수위를 선택해 사용해 보자. 진정한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절약'이다. /전순이기자 msu@

LOVESTORY in DECEMBER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웃 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 등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로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감동이 가득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30일까지 독자초청 이벤트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2013. 12.11(수)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주최 metro 주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투자자예탁금 3년래 최저 '증시 한파'

대기성 단기자금은 늘어…"내년 하반기 회복"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기 등 한치 앞 글로벌 증시 전망에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때 이른 한파가 불어닥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신흥국으로 확산하는 내년 하반기쯤 국내 증시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의 최저로 쪼그라들었고 개인의 공모펀드에 투자한 비중은 8년 만에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9일 현재 14조568억원으로 2010년 12월 30일(14조6815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 예탁금이란 고객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돈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 쏠림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 공모펀드 판매 잔고에서 개인은 지난 9월 말 현재 101조6863억원으로 57.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60.0%에서 2.89%포인트 감소하면서 8년 만에 60% 아래를 기록했다.

반면 장투 투자를 위해 묶어둔 대기성 단기자금은 늘고 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 21일 현재 42조6148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양 사태 여파로 한 달 새 3조원 가까이 줄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도 지난 21일 현재 77조654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조5168억원이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중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시기로 내년 하반기를 점쳤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다"며 "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는 내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2400까지 내다본다.

김 연구원은 "올해엔 미국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가 26% 오르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증시가 평균 13% 상승하는 등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까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부동산 시장과 기업 실적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중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전셋값 안정에 치중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업 실적에 따라 증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kim1@metroseoul.co.kr

10대그룹 환손실 8000억

국내 10대 그룹의 원화 강세에 따른 손실액이 80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25일 국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소속 83개 상장사의 환차손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1~3분기 누적 순환차손 금액은 76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은 환차익으로 15조9930억원을 벌었지만 환차손이 16조7530억원에 달해 환율로 인한 손실이 더 컸다.

지난해 1~3분기 순환차익이 957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조71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이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순환차손을 기록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710억원에서 올해 2890억원으로 증가했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440억원 순환차익에서 올해 2190억원 순환차손으로 역전됐다. SK그룹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환차익이 1180억원에서 올해 순환차손이 2010억원이었고, LG그룹도 900억원 순환차익에서 2820억원 순환차손으로 바뀌었다.

반면 현대중공업만 지난해 10억원 순환차손에서 올해 960억원 환율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원화 조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혜근기자 ksgt@

침대 만들기 신기하네 에이스침대는 충북 음성공장에서 중·고등학생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말까지 총 31회에 걸쳐 총 5730명의 학생이 공장을 방문해 침대공학연구소와 무인 생산 시스템 등 시설과 연구성과를 둘러볼 예정이다. /에이스침대 제공

배트맨차 본 뜬 '배트모빌' 경매가 얼마?

글로벌 이코노미

영화 '배트맨'에서 주인공이 몰고 나왔던 '배트모빌'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든 자동차가 경매에 나온다. 전 세계 배트맨 마니아들은 1억여 원의 예상 낙찰가격 소식에 동참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배트모빌을 재현한 자동차가 오는 30일 영국 서리주 브루클랜즈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낙찰 예상 가격은 9만 파운드(약 1억5400만원)다.

검은 망토를 걸친 배트맨이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배트맨 자동차. 이 자동차는 팀 버튼 감독의 1989년작 영화 '배트맨'에 등장한 차량의 내·외관을 완벽하게 살렸다.

폭죽 범처럼 날렵하고 매끈한 외관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5초 만에 시속 60마일(96km)에 도달할 정도로 엔진 파워도 강력하다. 재규어 3.2ℓ 6기통 엔진이 장착된 덕분이다. 승차감과 제동 성능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배트맨 자동차를 타고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매 관계자는 "이 차는 배트맨 영화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라며 "차를 타고 나가면 영화 속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트맨 자동차를 타고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에는 1960년 TV드라마와 영화 '배트맨'에 나왔던 오리지널 배트모빌이 경매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경매에서 배트모빌은 420만 달러(약 44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조선미기자

/영국 익스프레스

중국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상품	일정	가격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130,000부터
상해/항주/주가각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169,000부터
장사/장가계/원가계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349,000부터
곤명/석림/구향동굴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599,000부터
홍콩/마카오/심천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69,000부터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상품	일정	가격
대만(야류,온천,화련)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629,000부터
방콕/파타야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249,000부터
푸껫 휴양지의 여왕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399,000부터
캄보디아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499,000부터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449,000부터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상품	일정	가격
규슈 온천여행 ▶12월~1월 매일출발(일부제외)	3일	399,000부터
오사카 ★ 고베야경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49,000부터
북해도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699,000부터
오키나와 ▶12월~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499,000부터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1600-6963

2030이 만나고 싶은 CEO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30세대가 가장 만나보고 싶은 최고경영자(CEO)에 꼽혔다.

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30대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보고 싶은 CEO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31.7%)이 1위에 올랐다. 삼성 이건희 회장(29.7%), 두산 박용만 회장(15%)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CEO 중에서는 풀경화생활과학 한경희 대표(26.6%)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25.9%), 컴투스 박지영 대표(20.3%) 등이 2, 3위를 차지했다.

CEO들을 만나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미래에 대한 남다른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다'(18.1%), '사업 노하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16%)를 거론한 직장인도 많았다. /이국화기자 kmlee@

노후준비하는 소상인 40%

소상인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 매출은 2000만원을 간신히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소상인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소상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14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000만원 이하를 벌고 있다는 대답이 무려 47.1%에 달했으며, 1000만~3000만원(24.7%), 3000만원 이상(14.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순이익률은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인의 33.9%는 가족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6시간, 월평균 급여는 268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국화기자

KT 수도권 전역 광대역 LTE

이통3사 최초… 신임 CEO 내일부터 공모

KT가 25일 최고경영자(CEO)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일반 공모 일정을 발표하는 한편, 같은 시각 네트워크 전략 간담회를 진행해 그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초 사옥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KT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문, KT 홈페이지(www.kt.com)를 통해 후보자를 공모한다. CEO추천위는 이번 공모와 더불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추천 등을 통해 후보자 풀(pool)을 구성한 뒤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선정,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CEO추천위는 연내 최종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KT 광화문 사옥에서는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전무가 이통 3사 중 최초로 수도권 전역에 광대역 LTE망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성목 전무는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더 촘촘히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선 광대역 LTE 기술을 자랑했다.

아울러 향후 KT의 네트워크 계획도 설명했다. KT는 내년 1분기 광대역 LTE와 LTE-A를 엮어 최대 225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캐리어어그레이션(CA) 2.0 을 선보일 계획이다. KT에 따르면 이미 전국망에 깔려있는 두 네트워크 기술을 엮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지원되면 이 같은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300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CA 3.0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CEO추천위 발표와 나란히 네트워크 전략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KT가 대외적으로 광대역 LTE를 통해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에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한편, 새 CEO는 통신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새 CEO 일반 공모 발표를 앞두고 네트워크 전략 발표를 한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된 것 같다"면서 "새 CEO 후보자에게 'KT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골리판산 망고 33% 할인 이마트는 27일까지 골리판산 망고를 정상가인 1만4900원보다 33% 할인된 가격인 998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게임빌 에버플 지분 확보

모바일게임 업체 게임빌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초 라이벌 기업인 컴투스를 인수하는 빅딜을 진행한 게임빌은 25일 국내 게임 개발사 에버플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에버플은 핀란드와 태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인기를 끌며 누적 내려받기 1000만 건, 누적 매출액 180억원을 달성한 사회관계망게임(SNG) '몬스터워로드'를 개발한 회사다.

에버플의 연간 이익 규모는 약 30억원이라고 게임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게임빌은 지난 20일 '제2의 앵그리버드'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핀란드의 스타트업 오션뷰게임즈에 지분을 투자했다.

오션뷰게임즈는 유명 게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 출신으로 구성된 신생 개발사다.

이로써 게임빌은 한 달 사이에 3개 업체를 인수했다. /박상훈기자 zen@

일본차 나홀로 부진

토요타 판매량 급감 탓

국내에 진출한 수입 자동차 메이커 중 일본 업체의 올해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업계들은 올해 1~10월 판매가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영국(27.1% ↑), 독일(26.4% ↑)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모든 수입차 업체의 판매가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일본 메이커의 부진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요타의 판매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868대를 팔았으나, 올해는 6445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요 업체 중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전년 대비 27.3%포인트가 줄어든 실적이다.

토요타 브랜드 외에는 인피니티(3.7%포인트 ↓)와 캐딜락(39.8%포인트 ↓)만 판매가 줄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의 판매 부진 원인 중 하나로 디젤차의 부재(不在)를 꼽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저널리스트는 "한국 수입차 시장의 흐름이 디젤차로 넘어갔는데, 일본 메이커는 유독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의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태환기자 fomas@

<서울> "전세 사느니 집 사자" <경기도>

서울 세입자 주거비 부담 탓 이동 증가

서울 아파트의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경기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전세가에 조금만 돈을 더 보태도 경기도에서는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자금을 2~3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자금 부담이 덜해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침체된 분양 시장 탓에 속앓이를 하던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비싼 전셋값 덕에 살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 사업장에 서울 거주민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분양한 '별내 푸르지오' 계약자 중 약 51%가 서울 거주민으로 알려졌다. 별내 푸르지오 3.3㎡당 분양가는 1037만원인 반면 노원구 중계동 평균 전셋값은 70%에 이르는 3.3㎡당 750만원 수준이다.

이 회사가 같은 시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공급한 '미사강변 푸르지오'도 상황은 비슷하다. 3순위까지 서울 안에서 청약한 수요자가 996명으로 당해 지역 기타 경기지역 청약자 307명, 430명보다 2~3배가량 많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강동구와 접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대표는 "최근 지하철 5호선 연장까지 확정되어 심리적 거리가 더욱 줄어든 상태"라며 "문의 전화 절반 이상이 서울 사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규 분양 단지뿐 아니라 미분양 단지도 서울의 비싼 전셋값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화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서 분양한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는 최근 미분양 세대를 전세로 전환한 결과, 3일간 150여 가구의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계약자 중 40% 이상이 치솟는 전세가를 피해 서울에서 이주해 오겠다는 사람들"이었다며 "문의 역시 서울 거주자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짓고 있는 '운정신도시 롯데캐슬'은 이미 분양에 들어간 지 2년이나 지난 단지임에도 최근 주말 내방객이 4배가량 증가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해 그 어느 때보다 잔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서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이 저렴한 경기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기회에 교통이나 계약 조건이 좋은 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현대건설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분양시장 "오늘만 같아라"

모델하우스마다 북새통

사실상 마지막 골든위크를 맞아 모델하우스마다 몰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분양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20일과 22일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에 문을 연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와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모델하우스에 총 3만8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 중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는 이례적으로 주중인 20일 수요일에 견본주택을 개관했음에도 첫날 5000명이 넘게 몰린 데 이어 주말까지 3만여 명이 몰렸다. 또 22일 오픈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역시 주말까지 3일간 8000명가량의 투자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또 인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서 문을 연 포스코건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도 첫 주말 3만4000명이 다녀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모아종합건설과 중흥건설이 동시에 개관한 세종시 견본주택에는 약 2만 명가량이 몰렸다. 세종시 3-3생활권 M1블록, M3블록과 비슷한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방문객들이 두 단지를 모두 둘러보며 꼼꼼히 상품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은 최근 명지지구의 잇단 분양 실패 속에서도 롯데건설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 모델하우스는 3만2000여 명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간 동래구 사직동의 신규 공급에 많지 않아 대기 수요가 풍부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신화 기자

강남 센트럴애비뉴 분양

대한민국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에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가 분양된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로 연면적 1만3000여㎡, 점포 수만 110개에 달한다.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배후에 두고 있는 데다 오피스 밀집 지역에 위치해 고정 수요가 탄탄하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와의 거리가 34m에 불과해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다.

특히 이들 유동인구가 상가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 분석기법을 활용해 내부를 꾸몄으며 어느 곳에서도 소비자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4면 스트리트 상가로 설계됐다. 문의 (02)583-3880

/채신화 기자

독산동 롯데캐슬 5만 방문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문을 연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에 오픈 첫날부터 주말 동안 3일간 약 5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견본주택 앞에는 오픈 첫날부터 주말 내내 관람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300m가 넘는 줄이 이어져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리는 장사진이 벌어졌다.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도하부대 터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연면적 약 70만㎡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전체 아파트 3203가구 중 1차로 전용면적 59~101㎡형 15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84㎡ 기준 평균 3.3㎡당 135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독산동 424-1번지 현장 앞에 마련됐다.

/채신화 기자

페트에 담긴 보졸레누보 와인 롯데마트 홍보도우미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750㎖ 페트(PET)에 담긴 2013년 보졸레누보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일반 유리병에 담긴 보졸레누보보다 무게가 10% 정도 적게 나가는 PET 보졸레누보는 40% 가량 저렴한 1만4900원에 롯데마트 전 지점에서 판매된다. /뉴시스

아파트 공간 넓히기 이젠 천장

베이(bay) 경쟁에 몰두하던 건설업체들이 '옆'이 아닌 '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을 말한다. 베이가 많을수록 옆으로 집이 길어져 앞뒤 발코니 확장 시 공간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을 쪼개는 데 한계에 다다르자 천장을 높여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 업체가 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 천장고인 2.3m보다 10~30cm씩 높은 단지가 잇달아 공급되고 있다. 천장을 70cm 높인 아파트까지도 등장했다.

대우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공급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일부 가구에 특화 설계안 '층단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세대 내 바닥~천장 높이를 달리해 공간감을 높였다. 침실 2.36m, 거실 최대 3m의 천장고가 적용되고, 이 차이를 이용해 집 안에 계단을 설치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분양한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실내 천장고를 10cm 높인 2.4m로 설계했다. 거실은 우물천장을 적용해 2.55m까지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대림산업이 내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를 재건축해 공급할 '아크로리버파크'는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30cm 높은 2.6m의 펜트하우스 설계를 선보였다. SK건설이 인천 남구 용현동에 짓는 '인천 SK 스카이뷰' 역시 1층 세대의 천장고를 30cm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며 작은 아파트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옆으로 넓히는 것은 기본이고, 위로도 높여 집이 보다 넓게 보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경제계 "부동산법 빠른 통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이 연내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신화 기자

꼼꼼IT 리뷰 - 삼성전자 사운드 바 '에어트랙'

외모 쭉쭉…사운드 빵빵

무선에 모바일기기 연동 덩치 큰 서브우퍼 '어색'

한때 홈시어터는 부의 상징이었다.

40인치 이상의 대형 TV보는 생색내기가 어중간했단지 여기에 홈시어터를 구축,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집주인은 "사운드 정말 끝내준다"며 홈시어터를 영화와 함께 구동한다. 방문객들은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여전바디로 일말의 자존심을 지켰다. "집이 좀아 보인다!"

홈시어터를 설치하면 기기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운드 바 라는 것을 선호한다. 말 그대로 막대형의 슬림한 스피커다.

슬림하지만 사운드를 표현하는 능력은 우수하다. 일부 제품의 경우 진공관 앰프까지 채용해 LP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소리를 선물한다.

대표적인 기기가 삼성전자의 '에어트랙'이다. 본체 외에 서브우퍼가 따로 나와 저음과 다이내믹한 음향을 담당한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TV 스피커, 우퍼를 무선으로 연결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TV의 경우 삼성의 2013년형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선을 연결해 쓸 때는 TV 연식과 관계없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도 연동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 담긴 음악을 USB포트에 연결하면 거실이 나만의 콘서트장으로 변한다.

수백만원이 넘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 기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하지만 디테일에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우선 70만원대 제품과 잘 어울리지 않는 리모컨과 본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체격을 지닌 서브우퍼가 그렇다.

서브우퍼가 클수록 웅장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에어트랙'이라는 이름과 조화를 이루려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1인 창업 'IT후원군' 든든

후지 복합기 '다큐 CM215fw'·씨게이트 'NAS HDD' 등 군더더기 없어 매력

'1인 창조기업'이 늘면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IT기기 업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은 29만6137곳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와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증대, 아웃소싱의 증가,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기업이라 해서 문서 작업이 없을 수 없다. 문서를 출력해 거래처와 공유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기업 크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에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는 소규모 오피스 환경에 안성맞춤인 복합기 '다큐 CM215fw'를 선보였다. 원터치 와이파이, 모바일 프린팅, 디지털 데스크 문서 관리 시스템 등 고가의 대형 프린터에 적용되던 최신 기술들을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간편하도록 사이즈는 더욱 콤팩트해졌으며 일반 사용자들이 특별한 지식 없이도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여성 직원이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소기업용 복합기 '다큐 CM215fw'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쇄 정착 온도가 경쟁 제품 대비 20도 이상 낮은 친환경 EA ECO 토너를 사용해 최대 40%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30만원대의 가격 또한 경쟁력이 있다.

사진, 동영상은 물론 캐드파일과 같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데도 돈이 꽤 든다. 그렇다고 큰 회사에서 쓰는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쓰기는 부담스럽다. 씨게이트의 1인 기업용 하드 드라이브 'NAS HDD'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제품은 경쟁군에서 최대 용량인 4TB를 지원한다. 4TB는 81만9000장 이상의 사진(5MB 기준), 100만 곡의 음악(4MB 기준) 혹은 500시간가량의 HD 동영상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20만원대.

매달 최저 3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도 인기다. 서울 강남과 같은 목 좋은 곳에 위치하지만 1인실 30만원대, 2인실 50만~6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초고속 인터넷, 화상회의실 등 IT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냉난방기기, 복사기,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KT '지니 케이팝' 한류스타 프로모션 손짓 KT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81개국에서 제공 중인 스마트폰 전용 음악 콘텐츠 앱 '지니 케이팝(genie K-POP)' 다운로드 및 회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류 아티스트 특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컴, 개인용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선봬

드롭박스, 박스넷, 구글드라이브, 에버노트, 스카이드라이브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이 같은 장점을 지닌 개인용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인 '씽크프리 원드라이브'의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드롭박스, 박스넷, 구글드라이브, 에버노트, 스카이드라이브 등의 자료를 불러와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스크톱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환경에서도 원리하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홈페이지(www.1drive.c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셀카의 여신' 오세요

펜 E-PL6 체험단 30명 모집

여성 사진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올림푸스한국은 27일까지 셀프 촬영을 즐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콤팩트 미러리스 카메라인 '펜 E-PL6'의 체험단 3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페니(PENn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이번 체험단은 셀카와 SNS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 및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E-PL6의 소개와 추천 이유를 남긴 뒤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올림푸스한국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olympuskorea)에 남기면 된다.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 전원에게는 E-PL6는 물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작가의 프로필 사진 촬영 기회도 주어진다.

스마트폰 그저 바라만봐도 '잠금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쳐다만 봐도 잠금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 인식, 홍채 인식 기술이 스마트폰에 속속 탑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5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홍채 인식 및 근접 센싱 가능한 단말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출원번호 10-2012-0047311)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출원서에서 "홍채는 지문보다 많은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홍채 인식은 비접촉 방식이라 거부감이 없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도 정확히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S5에 홍채 인식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세대 아이폰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애플이 3D(3차원) 영상인식센서를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 프라임센스를 3억6000만 달러(약 3815억원)에 인수했다고 어제 보도했다. 이번 인수는 아이폰 5S에서 선보인 지문 잠금장치의 후속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프라임센스는 사람의 얼굴과 동작, 공간의 깊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360' 게임기의 동작인식 조작장치인 '키넥트'를 통해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6는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지의 '하트얼굴 크림' 반값

더페이스샵 10주년 기념 톱10 제품 등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빅 세일을 개최한다.

해당 기간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고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 톱10 제품에 50%의 큰 할인폭을 적용해 혜택을 극대화했다.

톱 10 제품 가운데 지난 9월 출시된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 대용량'은 겨울 시즌에 사용하기 좋은 풍부한 보습감과 브랜드 모델 수지가 광고하는 TV CF의 인기 등에 힘입어 단기간에 20만 개 이상 판매됐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50% 할인된다.

이 제품은 촉촉한 윤기 보습과 탱탱한 탄력 효과를 주는 주름 개선 기능성 쉐어셀 버터로 최근 여성들이 원하는 볼륨 있는 뺨과 날렵한 턱선으로 이루어진 하트 모양의 얼굴형, 즉 '하트페이스(Heart Face)'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올 한 해만 16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톱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더페이스샵 '힘아 만든 마스크시트'는 1000원의 합리적인 가격과 탁월한 품질 붙였다 떼어내는 편리한 사용법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행사 기간 동안 50%의 높은 할인폭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아이셀파 '中내신강좌' 할인

천재교육(회장 최용준)의 중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 '아이셀파'는 12월 4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중학교 내신 강좌를 예약 판매한다.

이번 내신 강좌는 중학교 1~3학년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과학 등 6과목의 1학기 강좌로 구성돼 있다.

예약자에게는 ▲수강료 20% 할인 ▲수강 기간 20일 추가 제공 ▲구매 강좌 교재 무료 제공 ▲강사가 직접 만든 학습 보조 자료 1 노트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내용은 아이셀파 홈페이지(www.isherpa.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전화 1577-1083

동아오츠카 '사랑의 이온데이'

동아오츠카는 지난 22일 사랑의 이온데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매월 25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동아오츠카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한파를 앞둔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온 1사랑과 본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소외계층 13가구를 찾아가 연탄 2600장과 쌀 780kg, 우리두유 13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황재용 기자

'송기엽의 야생화' 일력 출시

마루레나가 우리나라 야생화를 하루에 하나씩 감상할 수 있는 일력 제품 '송기엽의 야생화 2014년도판'을 출시했다.

송기엽의 야생화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40년간 촬영해온 송기엽 선생과 동호회 사진작가 31명이 찍은 야생화 작품에 꽃말, 해설 등을 담아 1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야생화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품은 교보문고 등 서울시내 서점이나 마루레나 홈페이지(www.maruhana.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2-2347 /황재용 기자

뭉클해서 사 입었어!

매출 일정 비율 기부하고 헌옷 기증하면 신상 할인 패션계 '코즈마케팅' 바람

최근 패션업계가 기부, 재활용 등 기업의 공익적 활동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을 높이고,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이 서포트 유니세프'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가을·겨울 신상 다운재킷 중 '제르곤'과 '피타고라스'를 유니세프 셀렉션으로 지정하고, 두 제품의 판매 수익금 5%를 전 세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식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이더는 유니세프 셀렉션 다운재킷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후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배낭 및 여행가방 등에 탈부착할 수 있는 유니세프 네임 태그를 함께 제공한다.

지난달 23일 아이더 모델 이민호가 유니세프 셀렉션 다운재킷 출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펼친다. 고객들에게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의류를 기증받아 아동복과 겨울 의류는 시리아로, 나머지 제품은 전 세계의 난민 등에게 전달한다.

속옷 브랜드 퍼스트올로와 보디가드는 입던 겨울 내의를 기부하면 신상 내의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부된 겨울 내의는 세탁 및 수선 과정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된다.

스포츠 브랜드 화승은 지난달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벌인 바 있다. 화승은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등 자사 브랜드의 신발, 의류, 용품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소외계층 아동 재육활동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 clw@metroseoul.co.kr

패션소품 '가죽 중무장'…동장군 기죽네

올겨울 '레더 바람' 예고

올겨울 '북극 한파'가 예고되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두루 겸비한 프리미엄 가죽·스웨이드 소재의 방한 액세서리가 인기다.

찬바람엔 휴대전화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 인케이스의 '레더 모드 케이스'는 가죽 소재를 사용해 쥐고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뒷면에 세 개의 소프트 폼을 삽입해 그립감 역시 뛰어나다.

차가운 손을 감싸줄 가죽 장갑은 겨울철 핫 아이템. 투미까또즈의 프리미엄 가죽 장갑은 IT기기 사용이 잦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장갑을 낀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하의 날씨에는 발끝이 가장 시리다. 소렐의 방한부츠 '케리부 라인'은 방수 가공 처리한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함께 사용해 눈 오는 날에도 쉽게 젖지 않고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한 겨울 헤드폰은 귀마개를 대신한다. 인케이스 오디오의 '소닉 오버-이어 헤드폰'은 귀를 감싸는 부분에 스웨이드 메모리폼을 써 보온성이 뛰어나다. 오디오 케이블에 장착된 마이크와 오디오는 아이폰과 연결할 수 있어 굳이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지연 기자

마리오 아울렛 '직장 어린이집' 부럽네

서울 가산동 마리오아울렛(회장 홍성열)이 지난해 1월 이용 편의성은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마리오아울렛 2관 4층에 오픈한 마리오아울렛 어린이집이 직원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비교적 여성 인력의 수가 많은 유통업계에서도 롯데(1곳)와 신세계(3곳)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및 사업장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 시설보다 보육료 부담이 최소 50% 이상 줄어든다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 마리오아울렛에서는 연간 약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의 교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솔교육 희망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현재 11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실내 공간(120여 평) 외에도 야외 테라스에 놀이시설(50여 평)을 마련해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보육 시간이 매력적이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 중 도담뜰 책읽기 캠페인은 하원 시에 '도담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15분간 책을 읽어주는 독서 증진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두뇌 발달은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정영일 기자

'짬짜면 스타일' 외식 뜬다

아웃백의 랍스테이크 피자헛의 더블박스… 한개 가격에 두가지 맛 실속메뉴들 출시 활발

한 메뉴 가격으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외식업계 실속 메뉴 등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히 두 메뉴를 함께 구성해 판매하는 세트 메뉴 개념을 넘어서 두 가지 메뉴를 한 가지 가격에 더욱 다양한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이른바 '실속 마케팅'이 외식업계에 활발하다.

◆랍스터냐 스테이크냐 '고민 끝'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연말 모임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이면 메뉴도 특별한 것을 찾게 된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고급 랍스터 요리와 정통 스테이크를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맛 볼 수 있는 겨울 한정 메뉴 '랍스테이크'를 출시했다.

랍스테이크는 코코넛 랍스터, 랍스터 리조또, 크리미 랍스터 토핑, 치즈 랍스터 테르미도르 중 먹고 싶은 랍스터 요리를 먼저 고른 후, 스테이크의 종류와 양을 골라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2만5000원부터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다.

베니건스에서는 하나의 접시에 무려 3가지 스테이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트리플 콤보 스테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두툼한 뉴욕 스테이크와 함께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그릴드 새우 모두를 2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

◆피자 박스 하나에 두 가지 맛

피자박스 하나 안에 두 가지 피자를 꽉꽉 채워 담은 메뉴도 인기다. 한국 피자헛은 새로운 토핑으로 맛과 다양성을 강화한 새로운 '더블박스'를 올 10월 출시해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피자 두 판을 한 박스에 담은 메뉴로, 총 5가지 토핑 중 2가지를 취향에 따라 선택해 2만5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미스터피자에서 선보이고 있는 '에그타르트 하프앤하프' 피자는 미스터피자의 신제품 에그타르와 함께 베스트셀러 상품인 쉬림프골드를 반반씩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피자 엣지(테두리 부분)에 에그타르트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머핀과 커피를 한번에

아침으로 머핀과 커피를 함께 사 먹기 부담스러웠다면 던킨 도넛을 방문해 보자. 던킨도너츠는 지난 10월 아침세트메뉴 '모닝콤보'를 2900~3900원에 출시했다. 4종의 모닝제품 중 한개와 던킨 오리지널 커피 또는 오렌지 주스가 함께 구성돼 있다.

/이효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추워야, 매운맛 좀 볼래!

죽도 누룽지탕도 당면도 매콤한 '핫 푸드' 출시 봄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예년보다 이른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에는 따뜻함을 넘어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매콤한 '핫 푸드(Hot Food)'가 인기다. 매운 음식은 뇌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의 열을 올려주는 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추운 날씨로 언 몸을 녹이는 데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이다.

'본죽'은 죽은 묽고 밍밍하다는 편견을 깬 매콤한 죽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신짬뽕죽'은 얼큰한 짬뽕에 각종 해산물이 어우러진 신기한 별미 해물죽으로 속이 확 풀리는 매콤한 맛을 자랑하는 메뉴다. 칼슘, 타우린, 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된 굴, 새우 등의 해산물을 듬뿍 넣어 영양적인 면도 살렸다.

블랙스미스는 쫄깃쫄깃한 누룽지로 만든 얼큰한 누룽지탕에 일새우·갑오징어·조갯살·홍합살을 사용해 매콤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누룽지 파스타'를 선보였다.

김가네는 스페셜 메뉴로 볶음김치와 대패주고 아삭한 청양고추가 만나 입맛을 자극하는 메뉴 '고추김치김밥'과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순두부찌개에 라면이 만나 부드럽고 얼큰하게 즐길 수 있는 '라면의 (생) 순두부' 등을 선보였다.

오뚜기는 '옛날 잡채 매콤한 맛'은 당면에 매콤 양념소스 베이스와 액상 수프·홍고추·당근 건조해 돈을 넣은 건더기 수프와 액상 유성수프를 변형해 시원통의 톡 쏘는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립식품의 '고추야채호빵'은 청양고추를 넣어 매운맛이 입맛을 자극하는 제품이다. 돼지고기의 함량을 높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만두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청양고추의 매운맛으로 느끼함을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정연일기자

백화점서 찜한 구스 다운재킷 "와! 싸다"

온라인몰 '아웃도어스'서 25일부터 최고 40% 할인

패션 유통기업 트라이씨클(대표 최형석)이 운영하는 '아웃도어스'(www.outdous.com)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겨울 아이템을 최고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추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는 등 겨울 아우터 특가 대전을 벌인다.

참여 브랜드로는 네파, 코오롱스포츠, K2·EXR·라푸마, 콜핑 등이며 덕다운 자켓 및 패딩 점퍼·구스 다운 점퍼 등 겨울 아우터 위주로 제품이 구성됐다.

특히 네파의 남성 덕다운 자켓은 정가 30만원의 제품을 60% 할인한 11만원대로 판매하며 추가 쿠폰 할인 및 바로 가기 접속 시 1% 즉시 할인까지 가능하다. K2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비니 혹은 귀마개 등의 아이템을 증정하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겨울 내의 증정 등 구매 사은품을 발송해준다.

/정연일기자

'송년모임' 6만원으로 해결

강강술래 특별세트 눈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불황 여파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알뜰하게 준비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12월 1일까지 한우불고기(500g), 술래양념(520g),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송년 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홈파티용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질찬한우떡갈비(3세트·1.08kg)는 4만2000원,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kg)는 2만52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세트(800㎖·10팩·30인분)는 7만5600원에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신송식품의 신안비단 천일염(1.5kg·6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상계점과 늘봄농원점에서는 송년회나 회식 등 단체(20명 이상) 고객을 위한 다채한 행복한 화목한 상차림 세 종류의 연회 메뉴를 선보이며 기본 점찬 외에도 모듬떡 잡채 삼색전 연어샐러드를 추가 제공한다.

또 상계점은 케이크와 샴페인, 현수막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빔프로젝터와 스크린도 이용 가능하다. 늘봄농원점은 테이블당 한우육회를 50% 할인가로 제공한다.

/정연일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되는데 노화는 눈에 보이는 피부뿐 아니라 몸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행된다. 그중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다. 특히 걷거나 뛸 때 혹은 앉거나 설 때 주로 사용되는 무릎관절은 이용되는 만큼 빠르게 늙어간다. 이렇게 무릎관절이 노화되면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생기는데 흔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퇴행성관절염 때문이다.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극심한 무릎 통증, 퇴행성관절염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80%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무릎의 연골이 노화 혹은 외상 등의 이유로 점점 닳아 없어져 결국 무릎뼈가 서로 맞닿게 되고 이로 인해 심하게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퇴행성관절염은 크게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초·중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발생한다. 또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말기에 이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무릎이 붓고 심지어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휘기도 한다.

◆ 인공관절 수술, 저소득층에겐 치료비 부담 커

퇴행성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한 간단한 치료로는 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금속 재질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무릎에 이식하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려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약 250만~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양쪽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의 수술비가 들고 수술 후에도 입원비, 간병비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을 전개하는 엄홍길휴먼재단

흔한 질환이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어도 이처럼 비싼 수술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본격 지원하고 나섰다.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장을 통해 신청

어르신·폐경기 여성 위한 건강강좌 '손짓'

대학병원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앞에 다양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경희의료원 어르신진료센터는 오는 27일 병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어르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식욕 부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강좌에서는 식욕 부진의 발생 원인과 극복 방법, 예방법 등에 대해 소개가 이뤄지며 경희의료원은 앞으로도 노년층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중앙대병원은 28일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폐경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안전한 호르몬 요법으로 젊게 사는 폐경기 ▲실제 나이는 중년, 뼈 나이는 심순으로 살기! 등의 강연이 열리며 병원은 참석자 중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발목으로 측정하는 초음파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부천성모병원 '김장나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은 부천시와 함께 지난 23일 지역 취약계층에 쌀과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성가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나눔 행사를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원내에서 모금 활동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부천성모병원의 자선단체인 성가자선회에서도 33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웰튼병원 '어깨관절센터'

웰튼병원은 어깨관절 환자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어깨관절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환자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관절내시경 시술을 비롯한 다양한 시술과 재활을 제공할 예정이며 웰튼병원은 센터를 통해 기존의 특화된 진료 분야인 고관절과 무릎에 이어 어깨, 손목, 팔꿈치 관절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도 갖추게 됐다.

/황재용기자

겨울만 되면 '미스 홍당무' 어찌하오리

안면홍조증 원인·치료법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소식에 울상인 이들이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실내외 높은 온도 차로 코와 볼이 붉어지는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데 붉어진 얼굴색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안면홍조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추울 때 더 심해지는 안면홍조증

안면홍조증은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질환이다. 피부가 희고 얇은 사람일수록 잘 생기고 심한 여드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원인이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모세혈관 때문에 나타나는 안면홍조증은 유독 겨울에 급증한다. 실내외 온도 차로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면서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안면홍조가 유발되는 것이다.

정원순 엔세스타피부과 원장은 "안면홍조는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등에서 심리적 위축을 주는 질환"이라며 "방치하면 모세혈관확장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홍조 – 예방이 중요

모세혈관은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관건인데 찬바람, 건조한 대기 등 잦은 온도 변화 등을 조심해야 한다. 외출 시 마스크 등을 착용해 찬바람을 피하고 실내에서도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겨울에도 자외선차단제를 꾸준히 발라 피부의 혈관을 싸고 있는 탄력 섬유를 보호해야 하며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 등은 모세혈관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게다가 안면홍조증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보통 '레이저'가 이용되는데 그중 홍반을 유도해 피부가 붉은 상태에서 치료하는 '홍반유도퍼펙타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홍반까지 잡아내 치료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높고 재발이 적다. 또 기존의 레이저보다 투과율과 정확도가 높은 혈관 전용 레이저 '브이빔퍼펙타'를 이용하기 때문에 색소침착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도 적을 수 있고 시술 당일부터 세안, 화장이 모두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디리아 시티몰에서 열린 '바간자 온 노벰버'에서 긱스가 '오피셜리 미싱 유'를 열창하고 있다. 팬들은 일제히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이 모습을 담았고, 유튜브에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게재됐다.(큰 사진) 팬텀의 멤버 키겐(오른쪽 두 번째)이 현지 팬이 선물해 준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작은 사진)

동남아 한류열풍 K-힙합 다시 살리다

K-팝 쇼케이스 '바간자 온 노벰버' 인니 공연 가보니

한류의 진앙지인 동남아시아에서의 K-팝 위기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식어갔다. 국내 방송사와 검증되지 않은 현지 공연기획사들이 기획한 종합선물세트식 공연이 경쟁적으로 열렸고 일방적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이어지며 K-팝에 대한 현지 팬들의 신뢰마저 무너졌다. 공급 조절의 실패는 물론 아이돌 댄스그룹으로 획일화된 콘텐츠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K-팝 쇼케이스 '바간자 온 노벰버'는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고 3세대 한류를 확장해나갈 대안을 제시했다.

◆대형 몰에 온 듯한 공연장

올해 엠넷의 대중퀴를 선만에서 이긴 힙합 듀오 긱스와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이 한국 아티스트를 대표해 '바간자 온 노벰버' 무대에 올랐다. '바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젊은 뮤지션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류의 지속적 해외 진출을 위해 기획됐다.

자카르타 시내의 대형 쇼핑몰인 간다리아 시티몰에는 1000여 명의 팬들이 몰려 3시간 내내 폭발적인 감성과 열기를 뿜어냈다. 마치 대형 클럽을 연상시키듯 관객들은 일제히 힙합 리듬에 몸을 맡기며 춤을 췄고 팬텀의 '버닝' '뉴 이어리' '팬텀 시티',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 유' 등을 한국어로 합창했다.

현지 공연기획사인 BIG엔터테인먼트 고회석 대표는 "이번 쇼케이스는 K-팝에 대한 현지 팬들의 최근 관심을 가장 잘 보여준 무대였다"며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던 팬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장르의 한국 대중음악에 귀를 열기 시작했다. 특히 힙합과 발라드는 다시 한류 열기를 끌어올릴 대안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긱스·팬텀 한국대표로 무대 올라 '마법의 180분' 팬 1000여 명 열광

◆블루오션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의미

K-팝의 다변화와 함께 블루오션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의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5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G20에 속한 숨은 경제 강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 탄탄한 한류 수요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곳으로 K-팝이 아랍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문화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네시아판 '슈퍼스타K'인 '갤럭시 슈퍼스타'를 후원했고, 기대 이상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최근 시즌 2까지 제작됐다. 올해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문화 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레인보우브릿지 김진우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4억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큰 시장이다. 한국 아티스트의 현지 진출은 물론 한국 제작 시스템 수출과 현지 인재 발굴 등 다양한 한류의 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내다봤다.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한 시점

국내 연예기획사들은 일본·중국과 달리 동남아 시장에서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진출에 머물러왔다. 현지 시장의 잠재력에 눈을 돌려 보다 체계적인 한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레인보우브릿지다. 국내 음악 관련 업체 중 최초로 베트남과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도 눈앞에 두고 있다. 3개국을 중심으로 인접 국가까지 아우르며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을 성공적으로 진출시켰고, 긱스와 팬텀은 물론 최근 백지영과도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몇몇 여가수와의 계약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현지인을 발굴해 한국의 한류메이킹 시스템으로 육성해 현지에 데뷔시키는 3세대 한류를 개척해온 강점을 앞세워 공연은 물론 현지 방송과 문화 시장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인 '갤럭시 슈퍼스타'를 진행한 바 있는 레인보우브릿지는 내년 3월 베트남의 공영방송 VTV에서 '롯데 VK-팝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K-팝과 현지 문화의 융합 작업을 계속해간다.

김 대표는 "장르 다변화와 제작 시스템 수출은 글로벌 K팝이 나아갈 새 활로"라며 "대형 기획사가 갖추지 못한 현지화에 최적화된 에이전시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카라시아' 15만명 몰려

걸그룹 카라가 두 번째 일본 투어 '카라시아'를 총 15만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언론들은 카라가 24일 고베월드기념홀에서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마쳤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이번 공연이 팀 탈퇴가 결정된 정니콜과 유학 예정인 강지영 등 다섯 멤버의 마지막 일본 무대일 가능성이 높다. 멤버 전원이 앙코르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두 남자 한류스타 위용

배우 이민호와 이준기가 한류스타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민호는 24일 자신의 중국 SNS인 웨이보에 "웨이보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1000만 돌파를 알렸다. 이준기 역시 23일 웨이보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자 "어떻게 1000만 명이 현실이 되다니 서로 힘이 돼주는 단단한 가족이 돼보자"는 글로 기쁨을 표시했다.

촬영 중 왼쪽손가락 골절

배우 이범수가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지난 14일 새벽 영화 '신의 한 수'의 액션신을 촬영하던 중 왼쪽 손가락이 골절됐다. 이 사실은 25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깁스를 한 채 KBS2 새 월화극 '총리와 나'를 촬영 중인 모습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범수 측 관계자는 "현재 상태가 심각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해 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잘 키운 딸 하나' 재벌녀

배우 윤유이가 다음달 2일부터 방영될 SBS 새 일일극 '잘 키운 딸 하나'에서 재벌녀로 변신한다.

25일 소속사에 따르면 윤유이는 이 드라마에서 대기업 SS그룹의 외동딸이자 설도현(정은우)의 사교풍 지 여동생 선도은 역을 맡았다. 드라마는 수백 년간 간장을 만들어 온 가문에서 태어난 넷째 딸 장하나(박한별)가 집안 때문에 남장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예슬·테디 6개월째 핑크빛

미국 출신 공통분모로 가까워져 – 배우·뮤지션 커플 탄생

배우 한예슬(사진 오른쪽)과 그룹 원타임 출신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테디(왼쪽)가 연인 사이라고 밝혀 배우와 뮤지션 커플이 탄생했다.

25일 테디와 한예슬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테디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5일 "두 사람이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예슬 측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미국 출신이란 공통분모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슬은 2001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연예계에 입문해 인기자로 활동하며 드라마 '논스톱 4' '환상의 커플' '타짜',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용의주도 미스신' 등에 출연했다. 2011년 8월 KBS 월화극 '스파이 명월' 촬영 중 연출자와의 갈등으로 촬영에 무단 불참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뒤 방송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테디는 1998년 힙합그룹 원타임 1집 '1TYM'으로 데뷔해 지난 2005년 5집까지 활동했다. 원타임 시절부터 작곡을 한 그는 이후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로 빅뱅, 투애니원, 세븐 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지난해 음악 저작권 수익 순위에서 9억여 원(세전)의 수익으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가수 김사랑과 JC지은은 교제 7년 만에 결별을 선언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JC지은이 과거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일 때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온 이들은 성격 차이로 올해 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진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PHOTO

김범-문근영 커플 다정한 입국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떠났던 공개 커플 김범과 문근영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급 귀국했다. 이들은 검은색 점퍼와 운동화, 회색 후드티로 통일한 커플룩을 입은 채 두 손을 꼭 잡고 공항을 빠져나와 눈길을 끌었다. MBC '달의 여신 전이' 촬영 중 인연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종영 후 당당히 열애 사실을 밝힌 후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 화제를 모았다. /뉴시스

▶ 당당한 공개 연애 멋지네요. /탁진현기자

지역주민들 삶의 노래 듣는 색다른 예능 '팔도 방랑밴드'

음악과 여행이 결합된 색다른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tvN '팔도 방랑밴드'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26일 첫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팔도 방랑밴드로 뭉친 여섯 명의 멤버들이 전국 곳곳을 돌며 서울 지역 주민들의 사연과 삶의 노래를 듣는 형식이다.

지난 9~10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정규 편성을 확정했다.

멤버로는 '예능 대세' 조정치와 데프콘을 비롯해 윤종신, 뮤지, 신봉선, 정준하 순으로 낙점돼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IFC몰 엠펍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자인 김도형 PD는 "(같은 계열)에서 인기 속에 방영되는 버라이어티) 꽃보다 할배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예능만 하던 방송인들이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모습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의 리더를 맡은 윤종신은 "신개념 음악 토크쇼가 될 것 같다. 일반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한편 첫 회에는 걸그룹 미쓰에이가 참가한 새 멤버 공개 오디션 현장과 멤버들의 첫 만남 뒷이야기가 공개된다.

/탁진현기자 [illegible]

25일 열린 tvN '팔도 방랑밴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데프콘, 조정치, 신봉선, 윤종신, 정준하, 뮤지(왼쪽부터). /손진영기자 [illegible]

한효주 "사생활 폭로? 문제될 것 없어"

전 매니저로부터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한효주(사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25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효주 아버지에게 4일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4억원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 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효주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진현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실형은 면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박시연은 185회, 이승연은 111회, 장미인애는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환기자

도심 수놓는 나눔 선율

메트로 신문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내달 11일 개최
여자경 지휘·소프라노 서활란 출연…250명에 무료관람 기회

국내 최대 무료 신문 메트로가 연말을 맞아 송년음악회를 연다.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안 디셈버'가 다음달 11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개최된다.

메트로가 이웃 간의 사랑 나눔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사진 왼쪽)의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펼쳐진다.

마에스트라 여자경이 지휘봉을 잡아 로시니의 걸작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을 비롯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요한 스트라우스의 유럽열차 폴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들려준다.

특히 화려한 성악가 소프라노 서활란(오른쪽)과 지난해 오스트리아 국제 칸스 가보르 벨베데레 성악 경연대회 우승자인 테너 김정진이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기타의 셋벌 원더랜도 출연한다.

메트로는 2007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왔다. 공연이 열릴 때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관객이 콘서트홀을 꽉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특히 다른 음악회와 달리 귀에 익은 클래식과 가곡, 오페라의 뮤지컬 명곡 등을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들려줘 관객들로부터 "자칫 어렵게 느꼈던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신청하면 250명(각 1인 2매)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가 제공된다.

/박선원기자 sek0427@metroseoul.co.kr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한국의 비경 '찰나의 미학'

사진작가협 전시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풍경분과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회도서관 나비정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분과에 속한 사진작가 60여 명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찍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공개된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 각 지부에 속해있는 작가들이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중에서 최상의 몇 장만 선별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풍경분과는 지난 2011년 제26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출범과 함께 탄생됐다.

주최 측은 "숨어있는 한국의 명소를 알리고, 한국 풍경사진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애써온 흔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의 017-236-6358

/박선원기자

'브라질 억류' 이연두 연극으로 활동 재개

브라질에 억류됐다 풀려난 이연두(사진)가 활동을 재개했다.

18일 귀국한 후 병원을 오가며 심신을 추스른 그는 23·24일 양일간 연극 '째째한 로맨스'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그는 내색 하나 없이 밝은 표정으로 극중 맡은 다빈 역을 연기해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로부터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공연 관계자는 "이연두는 리허설도 어느 때보다 열띤 극장에 도

착해 끝냈다. 심지어 두성이의 몸이 브라질에서의 고생 때 짐작하게 했지만 이연두는 '연극 무대에서 브라질의 안 좋은 기억을 털어버릴 계획'이라는 각오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연극은 이선균, 최강희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다. 내년 1월까지 대학로 SM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박선원기자

유럽에 울려퍼지는 아리랑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연이어 울려 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EU 수교 50주년 및 벨기에 한국문화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스피릿 오브 코리아, 송 오브 코리아, 아리랑'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연다.

이어 30일 스페인 모누멘탈극장에서는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스페인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제16회 정기 연주회가 '송 오브 아리랑 앤드 사르수엘라'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박선원기자

tvN
논두렁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숨은 시골 보컬을 찾아라!
본격 뮤직리얼로드
팔도 방랑밴드
매주 (목) 저녁 8시 tvN 방송
11월 28일 첫방송

박인비 사단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골프장에서 끝난 LPGA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5위에 오르며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박인비(KB금융그룹)가 가족과 10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친 박인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금왕·다승·올해의 선수>

"3관왕, 남친 외조의 힘"

박인비 LPGA 마지막 대회 11언더 5위

201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그야말로 '박인비(25·KB금융그룹)의 해'였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는 메이저대회 3연승 등 6승을 쓸어 담아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골프장(파72)에서 열린 2013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총 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줄이고 버디 5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5위에 입상해 상금 6만2777달러를 받아 상금 랭킹 1위(245만6290달러·약 26억612만원)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한국인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한 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또 올시즌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 시즌 6승을 거둬 다승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3라운드에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에 올라 박인비의 상금 1위 자리를 위협했던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마지막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유선영(27·정관장)과 공동 6위(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루이스는 최저 평균 타수 69.48타를 기록해 베어트로피를 받았다.

박인비가 올 시즌을 자신의 해로 마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약혼자 남기협씨 덕분으로 전해졌다.

박인비의 아버지 박건규씨는 "인비를 이자리에 올려놓은 이가 남 프로"라며 "인비가 힘들 때 만났는데 (돈 보고 결혼한다고 뭐나) 많이 억울할 것"이라며 미안해했다. 이어 "인비가 약혼 전에는 골프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러나 남 프로와 함께 다니면서 지옥이 파라다이스가 됐다"며 "2007년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앞두고 캐디를 해달라는 박인비의 부탁을 들어준 걸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정상호기자 yuwi@metroseoul.co.kr

동료가 뽑는 '프로야구 선수상'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뽑는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이 공개적으로 처음 열린다.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대전 도룡동에 있는 호텔 ICC 3층 컨벤션센터에서 2013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올해의 선수상)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500여 명의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정하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는 2009년까지 선수협 내부 시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시상 부문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재기 선수 ▲올해의 신인 선수 ▲올해의 기량발전 선수 ▲올해의 모범 선수 ▲올해의 뮤지스 투수 ▲올해의 뮤지스 타자 ▲올해의 스나 플레이어 등 총 8개 부문이다. /정상호기자

김보경 EPL 데뷔골

맨유전 후반 극적 동점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골을 터뜨린 김보경(24)이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카디프시티에서 활약하는 김보경은 25일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팀이 1-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다.

소속팀 카디프시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가운데 영국 무대 데뷔골을 쏘아 올린 그는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소중한 승점 1점을 팀에 안겼다.

유로스포츠는 이날 김보경에게 평점 8점을 줬다. 카디프시티에서 이날 평점 8점을 받은 선수는 김보경 외에 골키퍼 데이비드 마셜, 조던 머치, 프레이저 캠벨 등 네 명이다.

상대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웨인 루니와 파트리스 에브라 등 두 명이 평점 8점을 받았다. /정상호기자

후반 교체 투입된 김보경이 경기 막판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추신수 5년 1000억원 가치 충분"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대어 추신수(31)가 계약 기간 5년으로도 총액 1억 달러(약 1061억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이하 SI)는 24일 '추신수의 진짜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신수의 가치를 집중 보도했다. SI는 추신수가 이번 시즌 154경기에 나서 타율 0.285와 21홈런 54타점 20도루 112볼넷, 출루율 0.423 OPS 0.88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SI는 추신수가 기록한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를 예로 들었다. 이번 시즌 추신수는 4.8을 기록했으며, 이제 30대 초반의 추신수에게 매년 0.4씩의 하락을 적용한다고 해도 2019년까지 연간 2가 넘는 WAR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신수가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7년간 1억1000만 달러(약 1167억원)에 달한다. /정상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팀	1Q	2Q	3Q	4Q	합계
하나외환	21	13	15	20	69
신한은행	18	14	21	14	67